

2/21(월) 신명기 9-11장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땅

모세는 <그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엄청났던 반역의 날, 금송아지 사건입니다(출32장).

백성들은 이 사건을 단편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전말, 특히 하나님의 반응을 소상히 회고했을 때,

백성들은 당시의 서늘함을 온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애써 기억하고 반복해야 하지만,

불순종은 별다른 훈련 없이도 자연스럽고 능숙합니다.

이스라엘은 한결같이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9:7,24, 10:16).

새 세대 역시 땅을 얻으면 자기 공이라 여길 것입니다(9:4-6).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공의로워서가 아니라, 가나안이 악하여 추방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병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9:3-4, 11:1-7).

하나님의 인내와 모세의 혼신적인 중보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9:9,13,18, 10:10).

가나안은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땅^{*최호균, 2020나무생각}>입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새기고 곱씹으며,

삶의 지침과 방향으로 삼아야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상으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정하신 순리를 거스르게 되면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 것입니다(11:16-17).

하나님의 눈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땅 위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무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십니다(10:12-13, 11:1,13,22).

명령의 행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읽으며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나의 눈(마음)은 늘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❶ 가나안 땅과 우상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❷ 나는 명령을 지키려 애씁니까, 불순종에 능숙합니까?